

2005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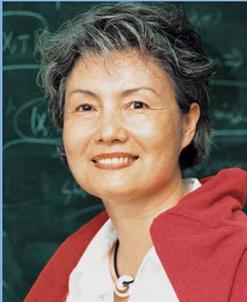
과 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각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인 가운데 최근의 업적과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귀감이 될 '2005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0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3분야로 나눠 진행된 선정과정에

서 학술연구 부문에는 고계원 아주대 수학과 교수, 김규원 서울대 약대 교수,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장,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문 등 5명이, 산업계 부문에는 김상면 자화전자 대표이사, 양덕준 레인콤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

니어링 대표 등 3명이, 사회문화 부문에는 김희준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 등 2명이 선정되었다.

이 행사는 청소년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동아일보, 동아사이언스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계원 아주대 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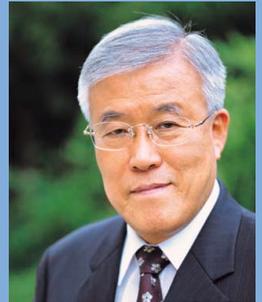
김규원 서울대 약대 교수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장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문



김상면 자화전자 대표이사



양덕준 레인콤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김희준 서울대 화학부 교수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

청소년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추천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고, 추천회의와 선정회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개 추천을 통해 모두 357명의 과학기술인을 추천받아 추천회의에서 그 중 35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정회의에서 10명의 과학기술인을 선정했다.

올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과학기술인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2002년 선정),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2004년 선정) 등 모두 39명에 이른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 선정된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복제해 최근의 생명공학 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2002년 선정)과 국 양 서울대 교수(2004년 선정)는 수년째 청소년을 직접 만나 과학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학기술인들의 연구활동과 업적을 비롯해 과학자가 된 동기와 과학자로서의 삶을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역할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㉔

수상분야	수상자	수상이유
학술연구	고계원	동역학 연구의 대기로서 주요논문을 우수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으며 물리학과 수학분야 연구를 접목해 융합과학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와 연구활동을 활용하여 젊은 수학자들의 연구경력 관리, 진로 지도 등 후학들의 훈련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성수리과학회의 초대회장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여성수학자와 학문 후속세대의 경력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규원	분자생물학 분야에서 Vascular Biology에 초점을 두고 혈관신생 작용기전을 연구하여 170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암 조직에 혈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이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발견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28건의 국내, 국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혈관형성 억제제 조성물과 혈관생존 개선제, 그리고 새로운 작용기전의 항암제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김예동	최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 및 오호츠크해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대규모 가스수화물을 발견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입지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세종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 해역에서도 국내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300배에 달하는 가스수화물 층을 발견했다. 특히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각종 학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이공계 및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신희섭	지난 10여 년간 뇌의 작용기전에 관한 신경과학 및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뇌 기능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계속해 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의학을 전공했지만 원하는 연구를 위해 연구원의 길을 택해, 의대로 전공을 바꾸는 많은 공대생들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귀감이 된다.
	장인순	핵연료주기기술기반 구축 및 핵연료제조기술 자립에 기여한 바 있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 제고, 세계 3대 원자력 플랫폼 형성 기반 구축으로 국가원자력 기술자립에 공헌하였다. 재임기간 중 기술출자 방식의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모델로 일컬어지는 '썬 바이오텍' 설립, 대덕 연구단지 내 '원자력 밸리' 조성사업 추진 등 원자력 기술의 산업화에도 기여했다.
산업계	김상면	전자제품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자석부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컬러브라운관의 색을 보정해주는 'PCM', 과전류 보호 부품 'PTC', 이동전화단말기 등에 들어가는 소형 진동 모터 등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양덕준	회사 설립 6년 만에 4천500억원 매출로 국내 벤처 업계 순위 1위라는 평가를 받았고, 레인콤의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가 국내 시장의 55%,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리버'는 최근 미국 잡지 PC월드가 선정한 '2005년 100대 우수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황철주	반도체 전(前)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ALD, LP CVD, MO, CVD, PE CVD, UHV CVD 장치뿐 아니라 ETCH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회문화	김희준	신문 칼럼 '과학으로 세상 보기'를 연재하고 있고, 다양한 대중강연에 참여하는 등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미있는 화학 여행」, 「자연과학개론」, 「과학으로 수학보기」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박석재	아마추어 천문학 발전을 위해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를 결성하고, 교원들에게 올바른 천문학 지식과 최신의 천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교원 천문연수 사업을 주도해 왔다. 국정브리핑에 '박석재의 천문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재미있는 천문학 여행」, 「블랙홀이 불쑥 불쑥」,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블랙홀」, 「우주를 즐기는 지름길」등이 있다.